

편집 및 발행인 : 조정희 · 발행처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

총괄 : 김동환 · 감수 : 이연경 · 전화번호 : 051-797-4913 · E-mail : kdong@kmi.re.kr

## 목 차

### ▶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

- 중동 분쟁 여파로 태국 물류비 증가...태국 정부, 공급망 대응 속 'Safe Haven' 전략 병행

### ▶ 유럽 물류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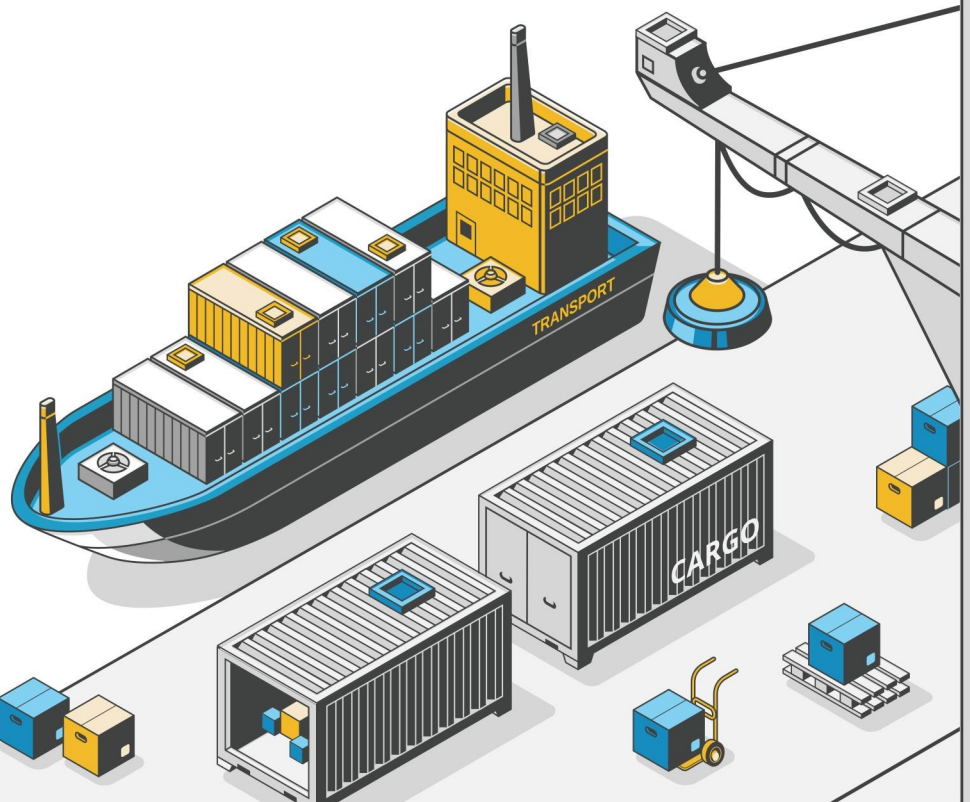
- EU, 식품 공급망 개혁 합의...농민 협상력 강화 추진
- Maersk, 유럽 내륙물류 허브 구축 위해 EWG 터미널과 협력 강화

### ▶ 글로벌 물류시장 동향

- 호르무즈 리스크, 물가 전방위 연쇄 충격...유가 급등에서 식품까지

### ▶ 공지사항

- 『2026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』 모집 공고
- 『국제물류 정보포털』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



## 중동 분쟁 여파로 태국 물류비 증가... 태국 정부, 공급망 대응 속 'Safe Haven' 전략 병행

- ▶ 중동 분쟁 장기화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태국 물류 산업 전반에 비용 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상황 지속

  - 미국·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
  - 유가가 배럴당 약 110~120달러 수준까지 상승함에 따라, 에너지 순수입이 높은 태국에서는 이번 유가 상승이 육상 트럭, 항공, 해상 운송 등의 물류 연료비 상승으로 연결됨
  - 태국 물류협회 따르면 중동 분쟁 이후 태국 물류비는 약 12% 수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특히 중소 물류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빠르게 나타나는 상황
  - 해상운송이 중단된 가운데 항공운송 또한 유가 폭등으로 인한 항공운임 증가로 고부가가치 또는 부패성 화물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음
  - 이에 일부 제조업에서는 원료 공급 차질로 생산이 영향을 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
  
- ▶ 중동 지역 군사 충돌로 선사들이 중동 노선 운항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면서 태국-중동 해상 운송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수출 물류 지연이 동시에 발생

  - 태국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태국의 대중동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3.7%(’25년 기준 약 124억 달러) 수준으로 중동 항로 차질이 수출 물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
  - 일부 선사들은 전쟁 위험으로 중동 항로 예약을 중단하면서 해상 운송이 사실상 ‘제로 상태’에 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
  - 한편, 전쟁 위험 보험료의 상승 및 선박 운항 축소와 컨테이너 부족이 겹치며 해상 운임이 크게 상승함
  - 이에 따라 자동차 및 관련 부품, 농식품, 가공식품 등 주요 수출 품목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약 320억 바트 규모 화물 운송이 지연된 것으로 추정됨
  
- ▶ 한편, 태국 투자청(BOI)은 이러한 지정학 리스크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 자국을 ‘Safe and Secure Production Base’로 육성하는 전략(Safe Haven)을 통해 제조 및 물류 거점화 방안을 적극 추진

  - 태국 투자청(BOI)은 현재 글로벌 긴장이 단기적 충격이 아니라 ‘New World Order’로 구조화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하며 태국의 안정적 생산기지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음
  - 특히 BOI는 Food·Energy·Supply Chain·Human Security의 4대 안보 기반을 중심으로 공급망 안정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
  - 실제로 전기차(EV) 산업 확대 정책(EV 3.5), 반도체 인력 양성(5년 내 8만 명), PCB(Printed Circuit Board, 인쇄회로기판) 및 HDD((Hard Disk Drive,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) 산업 확대 등을 통해 첨단 제조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함

- 또한 투자 승인 기간을 20~50% 단축하는 Fast Pass 제도, 데이터센터용 2,000MW 청정 전력 공급 정책(Direct PPA)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 유치를 강화할 계획임
- 이에 따라 태국 내 제조 투자 확대 시 창고·내륙 운송 포워딩 등 물류 수요 증가 가능성이 제기됨

▶ **뿐만 아니라 태국 정부는 유가 급등에 따른 물류비 상승과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입과 동시에 시장 안정화 조치 강화**

- 실제로 운송업계는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디젤 가격 상한 연장과 연료세 감면 등을 요구하고 있음
- 이에 태국 상무부, 산업부, 에너지부 등 주요 부처는 물가 안정, 제조 경쟁력 유지, 에너지 공급 안정을 중심으로 전방위 정책을 추진 중임
- 특히 에너지부에 추진 중인 디젤 가격 상한 유지 및 보조금 확대는 단기적으로 물류비 상승 압력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짐
- 다만 재정 부담 확대와 함께 향후 가격 조정 시 비용 급등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음

**중동 분쟁 이후 유가 상승 대응을 위한 태국 정부 정책**

인프라	주요 정책	정책 세부 내용
상무부 (Ministry of Commerce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물가 안정 및 물류 공급망 보호</li> <li>• 원자재 공급망 대응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가격 통제 및 가격 모니터링 강화, 대체 공급망 구축, 수출입 균형 조정 등 조치 시행</li> <li>• 고위험 공급원 의존도 완화, 대체 소싱 확보, 재고 점검 협력</li> <li>➔ <b>물류비 상승의 소비자 전가 억제, 수출 물류 차질 최소화 유도</b></li> </ul>
산업부 (Ministry of Industry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제조업 비용 구조 개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에너지 효율화, 대체 원료 확보, SME 혁신 펀드 확대</li> <li>➔ <b>제조-물류 연계 비용 절감, 중장기 물류 수요 안정화</b></li> </ul>
에너지부 (Ministry of Energy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료 가격 통제</li> <li>• 공급 안정 정책</li> <li>• 재정 부담 확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디젤 가격 상한 약 30바트 유지 / Oil Fuel Fund 통해 리터당 최대 20바트 보조</li> <li>• 전략 비축 60일 유지, 석유 제품 수출 전면 제한</li> <li>• Oil Fuel Fund 적자 확대 (3월 중 100억 바트 이상 예상)</li> <li>➔ <b>운송비 급등 억제, 단기 물류비 안정 효과</b></li> </ul>

자료: <https://www.nationthailand.com> (검색일: 2026.03.16.)

참고자료: <https://www.nationthailand.com>, <https://en.thairath.co.th>, <https://www.bloomberg.com> (검색일: 2026.03.16.)

## EU, 식품 공급망 개혁 합의... 농민 협상력 강화 추진

- ▶ 유럽연합(EU)이 식품 공급망의 균형을 재조정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며 농식품 분야 전반에서 농민들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 변경안에 합의

  - EU는 농민, 가공업체, 소매업체 간 오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식품 공급망에서 농민의 역할을 강화하는 새로운 조치에 대해 합의를 도출함
  -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협상단은 농산물 공동시장조직(CMO)을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번 합의에 도달함
  - 이번 변경안은 농민의 협상력을 높이고 상업적 관계의 투명성을 개선하며 농식품 시스템 전반에서 가치가 보다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
  - 해당 합의는 아직 EU 입법기관의 공식 승인이 필요하지만 농업 소득을 안정시키고 공급망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줌
  
- ▶ 이를 통해 식품 공급망의 구조적 불균형 해결을 기대

  - 최근 몇 년간 유럽 농업은 점점 더 큰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음
  - 생산 비용 상승, 시장 변동성 확대, 식품 공급망 내 가치 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해 많은 농민이 불확실한 재정 상황에 직면해 있음
  - 이러한 상황은 대형 가공업체, 유통업체, 소매업체와 거래할 때 농민들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, 많은 경우 생산자들은 농산물 최종 시장 가치의 일부를 수취하는 데 그치고 있음
  - 유럽위원회는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농업 부문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으며, 농민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는 것은 EU 전역의 식량 생산 능력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
  - 이번 입법 변화는 '24~'29년 집행위원회의 정책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약속에 따른 것으로, 농민 소득 개선과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보호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
  
- ▶ 이번 합의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농민과 구매자 간 계약 체계를 개선하는 것

  -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농산물이 판매될 때 많은 경우 서면 계약이 의무화됨
  - 이러한 계약에는 가격, 납품 조건, 지급 기한 등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어 농민들이 상업 관계에서 더 높은 예측 가능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
  - 또한 생산자 조직과 생산자 조직 연합의 역할도 강화되는데, EU는 이들 조직의 인정 절차를 간소화해 농민들이 협력하고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며 대형 구매자와 협상하기 쉬워지도록 할 계획임

- ▶ 이번 법안은 ‘공정(fair)’, ‘형평성 있는(equitable)’ 등의 자발적 제품 설명이나 ‘단기 공급망(short supply chains)’과 같은 표현의 사용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

  - 이러한 용어는 앞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마케팅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명확한 지침의 적용을 받게 됨
  - 또 다른 조항은 심각한 시장 혼란이 발생할 경우 EU가 회원국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, 이러한 개입은 농산물 시장이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을 때 가격을 안정시키거나 생산자를 지원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
  - 이 조치는 식품 공급망 일부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할 때 정부가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됨
  
- ▶ 본 합의에는 특정 육류 관련 용어 사용에 대한 규정도 포함

  -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육류 부위나 동물 종을 지칭하는 명칭은 도축된 동물에서 유래한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음
  - 따라서 세포 배양이나 조직 배양 기술로 생산된 식품은 이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지만, 버거·소시지처럼 육류 또는 식물성 재료가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제품 이름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
  
- ▶ 이번 잠정 합의는 '24년 12월 유럽위원회가 처음 제안한 내용을 대체로 반영하며 같은 해 발표된 'EU 농업의 미래에 관한 전략적 대화' 권고와도 일치

  -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공식 승인이 필요함
  - 개혁의 실제 효과는 농민과 구매자가 자발적 조치를 얼마나 폭넓게 채택하는지와 더 나아가 각 회원국이 정책 옵션을 어떻게 시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임
  - 완전히 시행될 경우 이번 변화는 식품 공급망 전반의 관계를 재편할 수 있으며 정책 입안자들은 이를 통해 농민들이 유럽 농업 경제에서 보다 강하고 안정적인 위치를 갖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음

참고자료: <https://www.innovationnewsnetwork.com> (검색일: 2026.03.10.)

## Maersk, 유럽 내륙물류 허브 구축 위해 EWG 터미널과 협력 강화

- ▶ Maersk는 내륙물류 서비스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해 헝가리 EWG(East-West Intermodal Logistics Plc)와 협력 추진

  - EWG는 헝가리 동북부 페네슬리트케(Fényeslitke)에 위치한 인터모달 터미널을 운영 중이며, 해당 터미널은 EU의 동부 국경에 위치한 주요 내륙 환적허브로 활용되고 있음
  - 또한 EWG 인터모달 터미널은 'TEN-T' 프로젝트로 재편된 Pan-European Corridor V를 동부지역으로 확장하는 종합네트워크 거점(Comprehensive node)으로 활용될 예정임
  - Maersk는 EWG 인터모달 터미널의 전략적 입지를 기반으로 내륙 물류서비스 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EWG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함
  
- ▶ Maersk는 EWG와의 협력을 통해 내륙물류 서비스 역량 강화와 자사 물류 네트워크 확장 전략을 이행

  - Maersk는 지난달 EWG 인터모달 터미널을 자사 내륙물류의 전략거점으로 편입하기 위해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했으며, 내륙물류거점으로 가능성을 파악함
  - 이에 Maersk는 자사 해상운송 네트워크와 연계된 '컨' 터미널 및 배후지 내 데포 및 드라이 포트 기능을 EWG 인터모달 터미널로 분산하여 통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
  - Maersk는 단계적인 'TEN-T' 구축에 따라 EWG 인터모달 터미널의 내륙 및 해상운송 연계 기능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함
  
- ▶ EWG 인터모달 터미널은 Maersk의 중부 및 동부 유럽 물류 네트워크에 편입되어 글로벌 복합물류와 연계한 주요거점 입지 확보를 도모

  - EWG 인터모달 터미널의 면적은 약 85만㎡에 달하며 컨테이너를 비롯해 벌크화물, 액체화물 등 다양한 화물을 취급하며, 연간 화물처리 능력은 100~120만 TEU로 파악됨
  - 특히, 해당 터미널은 5G 기반의 첨단 자동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, 물류기술 고도화 수준이 높아 Maersk의 내륙물류 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함
  - 추가적으로, EWG는 철도운송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카자흐스탄의 EuroTransit Group과 아시아-유럽 철도물류 협력을 추진했으며, EUROGATE Rail Hungary와의 블록트레인 회랑 구축 사업을 추진함

## EWG 터미널 및 Maersk 내륙 물류서비스 운영 현황



자료: <https://eastwestil.com>, <https://www.porttechnology.org> (검색일: 2026.03.16.)

- ▶ Maersk와 EWG의 전략적 제휴는 양사의 수익성 제고와 유럽 내륙물류 네트워크 연결성 강화에 기여
  - 'TEN-T'와 연계된 Maersk의 내륙물류 네트워크 확장은 철도운송 기반의 화물 흐름 유연성을 강화하고 유럽 내륙 지역의 접근성 향상에 기여함
  - Maersk와 EWG의 협력은 복합운송체계의 고도화를 촉진하여, 유럽지역의 물류 네트워크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것임
  - Maersk는 유럽시장 내 물류서비스를 확대해 현지 내륙물류 경쟁력 강화를 기반으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, EWG는 안정적인 화물 유치를 통해 자사 운송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

## 호르무즈 리스크, 물가 전방위 연쇄 충격... 유가 급등에서 식품까지

- ▶ 최근 미국-이란 간 군사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 항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대한 우려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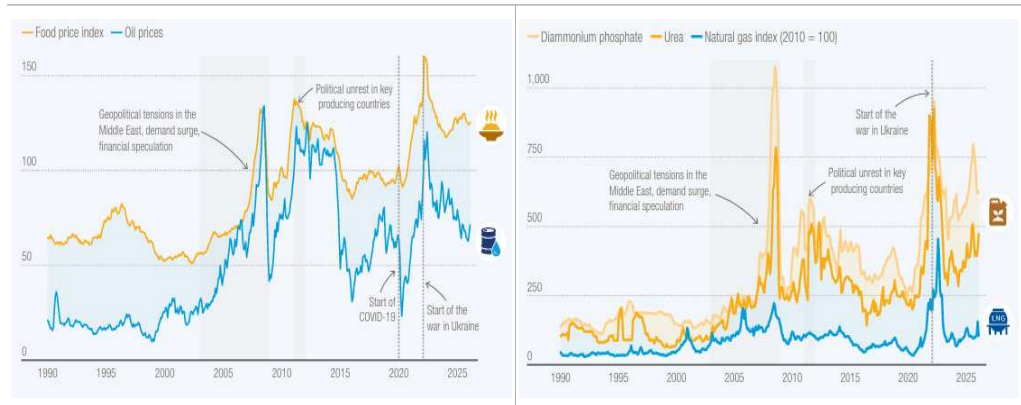
  -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 산유국과 글로벌 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해상 요충지로, 원유, LPG, LNG 등 에너지 자원을 중심으로 화학제품과 컨테이너·벌크 화물 등 다양한 품목의 글로벌 해상 물동량이 집중되는 핵심 수송 통로임
  - 또한 알루미늄, 석유화학 원료, 비료, 플라스틱, 고무, 배터리, 전자제품 및 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 원자재의 주요 운송 경로로 활용되고 있음
  - 특히 중동 지역은 글로벌 알루미늄 및 석유화학 제품의 주요 공급처로, 해협이 사실상 봉쇄될 경우, 자동차·항공우주·건설 등 제조업 전반의 생산비용 상승과 함께 농업용 비료 공급 차질로 인한 식량 가격 상승 가능성까지 제기됨
  - 또한 중동에서 생산되는 폴리에틸렌 수출의 상당 부분이 해당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포장재, 소비재,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
  
- ▶ 분쟁 상황의 확산으로 주요 글로벌 선사의 중동 항로 서비스 축소·중단이 이어지면서 해상 물류 네트워크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

  - 일부 선사는 중동 항만으로 향하던 화물을 예정 목적지가 아닌 다른 항만에 하역할 수 있도록 하는 '항해 종료(end-of-voyage)' 조항을 발동하면서, 중동항 컨테이너가 대체 항만에서 하역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
  - 이에 수출업체는 이미 선적된 컨테이너의 위치를 파악하고 대체 운송 경로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
  - 또한 선박 공격 위험과 항로 불안정성으로 인해 중동 항만 대신 오만 소하르(Sohar), UAE 코르파칸(Khor Fakkan), 사우디아라비아 제다(Jeddah) 등 대체 항만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, 홍해 지역 역시 지정학적 위험이 지속되고 있어 물류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임
  - 이러한 항로 변경은 컨테이너 운송 지연, 항만 혼잡, 장비 부족 등 추가적인 공급망 병목 현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
  
- ▶ 이번 분쟁의 장기화 가능성은 단순한 물류 차질을 넘어 글로벌 경제 전반의 비용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

  - 호르무즈 해협 운항 리스크 확대는 유가 상승으로 이어지며, 이는 해상 운송 연료 할증료 증가와 제조업 원자재 가격 상승을 동시에 유발하고 있음
  - 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와 LNG 수송 차질로 공급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 따른

- 것으로,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뿐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
- 특히 3월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약 119달러까지 치솟으며 '22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, 이는 운송비와 농업 생산비 상승으로 전이(cost pass-through)되면서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임
- 한편, 유럽의 대표적인 가스 가격 지표인 네덜란드 TTF 천연가스 가격도 약 45유로/MWh 수준으로 상승했으며, 아시아 LNG 가격 역시 약 16달러/MMBtu 수준까지 급등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 전반에 가격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음
- 이러한 천연가스는 비료 생산의 핵심 원료로, 비료 가격 상승을 통해 농업 생산비 증가 및 식품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구조를 형성함
- 동시에 유조선 운임 및 선박 연료비 상승으로 해상 물류비가 급등하며 공급망 병목과 비용 전이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
- 이에 에너지→비료→물류→식품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비용 상승 구조로 인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

(좌) 원유 가격과 식품 가격 추이 (우) 천연가스 가격 지수와 질소계 비료 가격 추이



주: 1990년 1월~2026년 2월, 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원유 가격(배럴당 USD 기준)을 의미하며, 가스 가격은 네덜란드 TTF 천연가스 선물 가격(MWh당 유로 기준)을 의미  
 자료: UN Trade and Development (검색일: 2026.03.17.)

참고 자료: <https://www.cnb.com>, <https://unctad.org> (검색일: 2026.03.17.)

# 2026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모집 공고

## 2026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

2026. 2. 20(금) ~ 3. 20(금)

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 
우리 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 
**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**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 
이에 2026년도 본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 
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

KMI International Logistics Weekly

### 사업개요

#### 1. 해운·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

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 
수반되는 타당성 조사·분석 비용 지원

- ① 인수합병형(현지기업 M&A 및 지분투자)
- ② 시설투자형(물류인프라 투자 및 확보)

#### 지원내용

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기업  
(법무/회계법인)을 통한 타당성 조사 소요 비용

#### 지원금액

최대 **2억원** 지원 (조사비용의 최대 **50%**)

#### 2. 해외시장 조사·컨설팅 지원 사업

글로벌 물류거점 확보, 물류공급망 분석 및 설계, 현지 물류시장  
조사, 해외법인 설립 등에 소요되는 조사 비용 지원

- ① 해외물류시장 진출 사전 지원
- ② 현지 진출기업 컨설팅 지원

#### 지원내용

해외진출 및 현지 시장조사 등을 위한 인건비, 국외출장비,  
컨설팅비 등 직접 비용  
(단, 현지 진출기업 컨설팅 지원은 외부 자문 비용으로 제한)

#### 지원금액

최대 **5천만원** 지원 (조사비용의 최대 **50%**)

**제출방법** 국제물류정보포털(withlogis.co.kr) 공지사항 참조

**문의**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  
김동환 센터장 T 051-797-4913 E kdong@kmi.re.kr 성현정 전문연구원 T 051-797-4648 E hjsung@kmi.re.kr

# 『국제물류 정보포탈』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

국제물류정보포탈

Ch

## 카카오톡 플러스친구

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?  
'국제물류정보포탈'을 추가하고 편리하게 받아보세요!

### KAKAO 채널 등록하기



**1** 카카오톡 검색창에 '국제물류정보포탈'을 검색합니다.



**2** 제일 오른쪽에 있는 '친구추가 아이콘'을 클릭합니다.